

예술과 문화, 지역 균형발전의 키워드

오세곤 본지 편집위원

culture'art
사회 모든 면에서 균형이 깨져 있는 상태라면 '예술과 문화'는 그것을 바로잡는 시발 동력으로서 가장 알맞다. '예술과 문화'를 바로잡아 사회 전체를 바로잡는 출발로 삼고, '예술과 문화의 지역 간 균형'을 이뤄 나머지 모든 부분의 '지역 간 균형 발전'도 이루어야 한다.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내세우는 구호가 있다. 바로 '지역 간의 균형발전'이 그것이다. 그런데도 중앙과 지역 간의, 또 지역과 지역 간의 차이는 점점 커져만 간다. 물론 여기서 '차이'란 '다양성'이나 '다름'을 말하지 않으며, 반면에 '지역 간의 균형'은 '모든 지역이 개성 없이 똑같은 상태'를 뜻하지 않는다. 아마 '서로 다르면서도 각 구성원의 만족 정도가 비슷한 건강한 상태'를 '균형'이라 한다면 설명이 될 것이다.

우리 예술과 문화의 현주소

근세 100년 동안 우리나라는 엄청난 변화를 겪었다. 그중에서도 최근 몇 십 년 동안은 실로 엄청난 발전을 했다. 그러나 그 발전의 의미가 우리 삶과 관련된 모든 부분에 해당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주로 경제와 관련된, 그러니까 직접 돈으로 환산되는 부분의 발전일 뿐이다. 더구나 다른 부분에서는 오히려 후퇴했다는 표현이 적당할 텐데, 이 후퇴한 부분들이 발전한 부분을 위해 희생되었으리라는 것은 쉽게 추측해 볼 수 있다.

그 후퇴한 부분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예술과 문화이다. 즉 흔히들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무슨 예술과 문화냐고 하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가난한 시절에도 예술과 문화는 엄연히 우리 삶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것이 후퇴 정도가 아니라 경제적 발전과 함께 아예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1) 무너진 예술과 병든 문화

오랜 세월 우리 예술은 나라를 지탱하는 기둥으로서 국가와 사회가 함께 지켰

예술과 문화가 서로 연결된 채 함께 점진적으로 변화할 때 그 예술이 문화의 뿌리로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예술과 문화는 기이하고 위험한 상태에 빠지고 말았으니, 지금 우리가 접하는 예술의 총체적 붕괴 상황은 바로 그것이 현실화한 것이다.

Collapse of art

다. 특히 문학은 고급 공무원을 뽑는 기준이었고, 군왕을 비롯한 지배계층의 삶에서 시와 소리와 그림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었으며, 일반 백성들의 고단한 삶 속에도 노래와 춤과 놀이가 깊숙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래서 설령 신분이 낮아도 예술의 능력을 지닌 사람은 그것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음으로 해서 사회적인 인정과 대접을 받았으며, 그런 사회 분위기에 덧붙여 국가 차원의 예술 육성 보호 정책이 늘 확실하게 존재했다.

그러나 그것은 100여 년 전 외세 침탈 때부터 크게 흔들리다, 60년대 이후 경제 개발과 함께 완전 붕괴하고 말았다. 주지하다시피 예술은 잘 짜인 예술가 양성 체계와 상시로 예술을 즐기는 전국민적 토양 위에 꽃을 피운다. 그런데 외세 침탈에 의한 국력 쇠퇴와 국권 상실로 국가 차원의 예술 정책이 무너지고 공적이건 사적이건 예술가 양성 체계가 마구 흔들려버렸다. 더욱이 국권을 회복한 뒤로는 참혹한 전쟁을 겪으며, 또 전투적 경제 개발 논리에 밀리며, 국민의 삶 속에서 예술의 존재는 철저히 소외되고 말았다.

그러나 정말 큰 문제는 이러한 예술의 붕괴가 곧바로 문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예술이 없는 문화란 도저히 그 품격을 장담할 수 없고, 그렇게 품격을 잃은 문화는 국가와 민족과 사회의 허약함으로 이어지며, 그것은 다시 예술의 존재를 위협한다. 물론 문화는 서로 영향을 미치며 계속 변화한다. 과거 불교가 들어올 때

그랬고, 몽고가 우리 민족을 침입했을 때도 그랬다. 그러나 그 변화는 늘 완충장치가 있었고 그래서 서서히 융합하며 역시 우리의 것으로 튼튼히 뿌리내렸다.

그러나 근세 100년 간 이루어진 서양문화의 유입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 일제시대를 거치며 조금씩 잠식되던 우리 문화는 해방 이후 전쟁을 거치며 급격히 무너졌다. 일제가 우리 문화를 말살하려 할 때는 그나마 거기에 저항하는 힘이 존재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난 후 미국을 중심으로 한 문물의 침범에는 쌍수를 들고 환영하며 스스로 우리 것을 모두 부숴버리고 말았다. 일제가 낯그릇을 공출할 때는 몰래 땅에 제기를 묻으며 우리 것을 지키던 민족이 해방 후 스테인리스 혁명이 일어나자 앞 다투어 그것을 내다버린 것이다.

예술과 문화가 서로 연결된 채 함께 점진적으로 변화할 때 그 예술이 문화의 뿌리로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예술과 문화는 짧은 시간 동안 급격한 유입과 심각한 파괴를 겪었고, 그래서 예술이 문화의 바탕으로 버터주는 건강한 상태가 아닌, 엉뚱한 곳에 뿌리를 박고 유해 여부마저 불확실한 양분을 마구 빨아들이는 기형의 문화와, 그 줄기와 잎으로부터 산소와 햇빛을 전달받지 못 하는 시한부 인생 같이 병약한 예술이 별도로 존재하는 기이하고 위험한 상태에 빠지고 말았으니, 지금 우리가 접하는 예술의 총체적 붕괴 상황은 바로 그것이 현실화한 것이다.

2) 획일적 계층화

예전 우리 민족이 가무를 즐겼다면 그 사실일까? 믿을 수 없다. 물론 수많은 노래방과 행락철의 관광버스 안 풍경을 보면 그 말이 맞는 듯도 하다. 그러나 온 국민이 전원일물로 미친 듯 자막을 따라 불러대는 노래나, 버스가 휘청거리게 뛰어대는 막춤에서는 예술적 품격이나 문화적 여유는 찾아보기 힘들다. 즉 그 놀이의 시간마저 전투를 벌이듯 경제 개발을 밀어붙이듯 맹렬하게만 소진하고 있는 것이다.

전투적 경제 개발은 문화적 공백을 만들었고 그 공백은 빨라진 대중매체에 힘입어 급속히 뒤흔어 채워졌다. 즉 열심히 일만 하다 은퇴하니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난감하고, 스스로 뒤흔어 채워질 능력이 없으니, 남들 하는 대로 따라 할 수밖에 없는 것과 같은 형국이다. 그러나 그 공백을 채울 땐가는 도무지 구분이 안 되는 판에 박은 모습일 수밖에 없다. 앞의 노래방이나 관광버스 안의 풍경은 바로 그 획일화된 문화의 표본이다.

더욱이 예술과 문화를 내세우고 전국적으로 지역마다 벌이는 축제를 보면 거의 모두가 대동소이하다. 사실 이렇게만 본다면 최소한 문화에 있어서는 역설적이게도 지역 간 차이가 전혀 없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언어적 유희일 뿐이다. 앞서 이미 말했듯 이 글의 제목이 제시하는 '지역 간 균형'은 결코 '획일적으로 병든 상태'가 아니라, '서로 다르면서도 각 구성원의 만족 정도가 비슷한 건강한 상태'를 뜻한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우리 사회에 이미 문화적 계층화가 심각할 정도로 진행됐다는 것이다. 서울과 지역이 다르고, 서울에서도 강남과 강북이 다르고, 한 지역 안에서도 경제 상태에 따라, 세대에 따라, 성별에 따라 다르다. 그러나 이 때 다름은 '문화적 다양성'에 해당하는 다름이 아니라 상호 소통이 막힌 폐쇄와 단절을 뜻하는 위험한 다름이다.

3) 과시와 고립의 균형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새로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지역 간의 균형 발전'을 기치로 내걸었다. 물론 좋은

말이다. 그러나 매년 펼치는 정책을 보면 과연 균형의 올바른 의미를 알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서울 강남에 예술의전당이 들어서더니 이내 거의 같은 모습의 구조물이 전국 광역시도에, 그리고는 전국 시군구에 차례차례 세워진다. 심지어 고양시처럼 한 자치단체 안에 두 개의 문예회관이 들어서기도 한다.

이렇게 노태우 정부부터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를 거쳐, 현재 참여 정부에 이르기까지 수백억 원에서 천억 원까지 들인 거대한 과목이 끊임없이 서고 있다. 물론 최근에 들어서는 각 지역 문예회관은 복합 문화공간으로서 상당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고, 또 몇몇 모범적인 사례도 있다. 그러나 자치단체장의 과시욕에 이끌려 인구수에 상관없이 무조건 크게만 짓고 보는 풍토에서 나름의 특성을 갖춘 알찬 문화시설은 기대하기 어렵다.

실제로 상당수의 자치단체가 엄청난 건축비를 들여 건물만 번드르르 세웠지 정작 운영을 위한 예산 편성에는 인색하기 짝이 없다. 그러니 그 건물을 채울 프로그램이 있을 리 만무하다. 주민을 위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것을 상시 운영하는 것이 당연하긴만, 그럴 능력과 자격을 갖춘 전문가도 없이 그저 비슷하게 시늉만 내거나, 아예 개점휴업 상태로 방치하다 가끔 자치단체장이 생색이라도 날라치면 생돈을 들여 유명 작품을 불러다 호사를 부리기도 한다.

그런데 이런 사정은 문예회관뿐만 아니라 모든 문화기반시설에 골고루 해당된다. 즉 도서관은 장서가 부족하고 전체적으로 전문 인력도 부족한데 특히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장이 사서가 아닌 경우가 많다. 박물관과 미술관도 세부 분야별로 전문 인력이 태부족이어서 기본 임무라 할 수 있는 전시와 조사 연구, 교육 서비스가 몹시 취약하고, 문화의 집도 재정난에 허덕이며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문화 선진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문화기반시설의 수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러나 선진국을 따라잡겠다고, 또 지역 간 격차를 없애겠다고, 무조건 수만 늘려서는 결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물리적이고 가시적인 차원의, 즉 과시적 성격의 균형만 추구하다가는 심각

‘예술과 문화’의 ‘지역 간 균형’은 무엇보다 다양성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의 예술이 살고, 그것을 토대로 문화가 살아야 한다. 그러려면 각 지역별 예술 및 문화의 지형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

Variety

한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 대표적인 예가 현재도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문예회관 신축임은 이미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문화기반시설들이 안고 있는 더 큰 문제가 있으니, 다름이 아니라 상호 교류와 협력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다. 한 지역 안에서 도서관과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문화의 집이 서로 연계되어 적절히 역할 분담을 하거나 공동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일은 극히 드물다. 그러니 다른 지역과 연계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 사실 이러한 고립 운영은 같은 종류의 기관끼리도 마찬가지인데, 도서관이나 박물관, 미술관조차 그런 교류 협력을 못 한다는 것은 참으로 심각한 일이라 하겠다.

예술과 문화를 통한 지역 균형 발전

‘예술과 문화를 통한 지역 간 균형 발전’이란 말은 참으로 공허하다. 왜냐하면 앞서 보았듯 ‘우리의 예술과 문화’는 심한 병증을 앓고 있으며, 그 자신의 균형마저 방향이 크게 잘못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히려 거기에서 해결의 단서를 찾을 수 있다. 어차피 사회 모든 면에서 균형이 깨져 있는 상태라면 ‘예술과 문화’는 그것을 바로잡는 시발 동력으로서 가장 알맞다. 즉 ‘예술과 문화’를 바로잡아 사회 전체를 바로잡는 출발로 삼고, ‘예술과 문화의 지역 간 균형’을 이뤄 나머지 모든 부분의

‘지역 간 균형 발전’도 이루자는 것이다.

1) 지형에 따른 종합 설계

마치 입에 맞는 음식이 제각각이듯 ‘예술과 문화’도 지역마다 다른 것이 당연하다. ‘예술과 문화’의 ‘지역 간 균형’은 무엇보다 다양성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의 예술이 살고, 그것을 토대로 문화가 살아야 한다. 그러려면 각 지역별 예술 및 문화의 지형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 이 또한 가시적 균형에 매달려 ‘각 지역 공히 얼마’ 하는 식의 지원책을 내는 것은 참으로 위험하다.

어떤 지역에서 어떤 예술가가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 지역 문화기반시설의 종류 및 운영 실태는 어떤지, 이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도는 어떻게 되는지, 예술가와 문화기반시설은 연계가 있는지 아니면 전혀 별개로 존재하는지, 앞으로 예술가와 문화기반시설을 능히 하나로 연결시킬 만한 가능한 구심점이 있는지, 지역 내 체험 프로그램이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문화적 기획 역량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프로그램을 기획했을 때 호응도는 어떻게 될지 등 여러 가지를 따져본 뒤 종합 설계를 하여야 하며, 그 설계에 의해 만약 빈 곳이 있으면 채우고 끊어진 곳이 있으면 연결시키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다.

다시 말하지만 새로 짓고 세우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

다. 그것보다는 현재 있는 요소들의 효율성을 높이는 게 우선이다. 천억 원짜리 문예회관을 짓기에 앞서 백억 원을 들여 기존의 군민회관을 리모델링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고민해야 한다. 무조건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기 보다는 문화의 집, 박물관 등 기존의 문화기반시설이 담당할 수 있는 일은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 그래서 가능성이 발견되면 인력과 예산 등 그간 원활한 기능을 가로막았던 빈틈을 보충해 주면서 과감히 맡겨야 한다.

2) 시민 생활 밀착형 설계

본격적인 문화의 시대를 맞아 예술과 문화, 또 그를 품을 문화기반시설은 지역의 정체성과 공동체를 형성하고 창의성을 증진하며 지역을 활성화하는 중요한 자원이다. 이에 있어 문화기반시설 정책은 시설 설치보다는 예술경영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 특성에 적합한 경영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 또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관료적이고 획일화된 경영체계를 탈피하여 고객 내지는 시민 지향의, 전문화된 경영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한 시민중심의 문화경영체계. 이를 위해서는 시민들이 경영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확대 및 주민자치 여건 조성, 문화자원봉사 활성화, 시민들의 문화동아리 활성화, 시민들의 문화수용조사 및 이를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 시민들이 스스로 만드는 문화프로그램 개발, 평생문화학습사회에 부응하는 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역의 문화예술 및 사회단체들과의 연계 강화 등 다각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더불어 똑같은 맥락으로 시군구 지역 단위보다 더 작은 단위, 즉 각 지역 읍면동에서, 각 리에서, 동네에서, 아파트 각 동에서 예술과 문화가 꽃피는 상태를 지향해야 한다. 그렇게 소단위 생활권의 예술과 문화가 살아날 때 비로소 어떤 주민이든 맘만 먹으면, 아니 맘을 먹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예술과 문화에 접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예술과 문화에 익숙해진 주민들은 다시 예술과 문화를 발전시키는 토양이 될 것이다.

사실 읍면동 등 실생활권 단위의 과반수나 되는 지역이 단 한 개의 문화시설도 갖추고 있지 못하다. 문화시설 조성 정책이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더 나아가 실생활권 단위로 확대되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이다. 따라서 앞으로 소규모 문화복합공간인 ‘문화의 집’ 유형의 문화공간들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으며, 읍면동 사무소와 같은 공공건물의 일부 공간이나 기타 공공시설들의 유휴공간을 문화공간으로 전용하는 사업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이렇듯 소규모로 많아진 문화기반시설의 정보화사업 또한 대단히 중요한데, 각 문화기반시설, 예술가와 프로그램 기획자 등 전문인력, 예술과 문화 관련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등 크고 작은 모든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공유함으로써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연계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여야 할 것이다.

3) 정신적 고양과 진정한 균형

서두에서 ‘균형’을 ‘서로 다르면서도 각 구성원의 만족 정도가 비슷한 건강한 상태’라고 설명한 바 있다. 여기서 ‘비슷한 만족 정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만족은 정신의 영역이다. 물론 물리적이거나 육체적인 만족이 정신적 만족과 완전히 분리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물리적 균형에 집착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앞서 각 지역 문화기반시설 실태를 통해 확인한 바 있다.

인간은 아주 사소한 것에도 빠질 수 있다. 여기서 빠진다는 것은 좋은 의미에서이다. 작고 다양한 취미거리가 존재한다면, 하나하나 빠지면 모두 인생이 즐거워지는 그런 취미거리가 주위에 산재한다면, 또 그런 취미생활을 영위하기에 전혀 불편함이 없게 여건이 잘 갖춰져 있다면, 아마도 그런 환경에 사는 이들이라면 취미를 즐길 확률이 높고, 그렇게 취미를 즐기는 이들이라면 정신적 만족도가 높을 것이 자명하다.

사는 게 바쁜 사람들. 돈을 벌기 위해 바쁘고 그 번 돈을 쓰기 위해 또 바빠야 하는 사람들. 돈을 쓸 때조차 전투하듯 맹렬히 자신을 고갈시키는 사람들. 이들에게 여

문화기반시설 정책은 시설 설치보다는 예술경영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 특성에 적합한 경영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 또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관료적이고 획일화된 경영체계를 탈피하여 고객 내지는 시민 지향의, 전문화된 경영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Region

가를 즐기는 지혜를 가르쳐야 한다. 예술과 문화의 향기를 느끼도록 이끌어야 한다. 문화적 취미를 즐기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그 모든 것을 언제나 손만 뻗치면 잡을 수 있게 늘 가까이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삶의 여유는 정신적 만족으로 이어지고, 그렇게 고양된 정신은 인간의 눈을 새롭게 만든다. 그 새로운 눈에는 그 동안 못 보던 것이 보이게 될 것이다. 즉 그 눈으로 보면 그 동안 집착하던 물리적, 가시적 균형이 대단히 우스꽝스럽다는 것도 알게 될 것이고, 그간 맹렬히 추구하던 경제적 수치가 그것만으로는 허망하기 짝이 없다는 것과 진정한 행복은 결코 경제적 수치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도 알게 될 것이다.

예술적으로, 문화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품격이 높아진 사람들. 그들은 우스꽝스러운 물리적 형평에 집착하지 않고, 삶의 수단인 돈을 무조건적인 목적으로 삼는 어리석음도 범하지 않을 것이다. 또 타인을 무조건 잠재적인 적으로 간주하는 피해망상도 떨쳐버릴 것이고, 그래서 결국 남을 위하는 것이 자신을 위하는 것이라는 지혜도 터득할 것이며, 그렇게 너그러워진 사회에서 갈등과 범죄는 갈 곳을 잃을 것이다. 그런 사회에서라면 인간들은 진정한 형평과 참다운 균형을 추구할 것이며, 그렇게 '예술과 문화'가 바탕을 이룰 때 비로소 '지역 간 균형 발전' 또한 이루어질 것이 자명하다. 🧑